

‘로컬푸드 직매장’ 화순농협-인근 상인 갈등

하나로마트 옆 시장길에 8억 들여 추가 조성 주민·상인회 “지역상권 다 죽는다” 강력 반발

화순농협이 화순하나로마트 인근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조성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상인들은 기존의 1650㎡ 규모의 하나로마트에 새롭게 305㎡ 크기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면 “재래시장 등 인근 상권이 큰 피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화순농협에 따르면 8억원을 들여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27-1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해 팔고, 판매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한 지역 상권의 반발이 거세다.

화순전통시장상인회 박두진 회장은 “농협 등 대형매장이 들어서면서 화순 내 8개 장터 중 전통시장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화순읍과 능주면 전통시장 뿐이다”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하나로마트의 ‘확장형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기존의 매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이름으로 넓혀 지역 상권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화순 하나로마트 대형화로 인해 시장상인들은 10년 전에 비해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로컬푸드 직매장 예정지 인근의 화순전통시장은 점포, 상가 168곳, 노점상 298곳 등 468곳이 영업 중이다.

화순전통시장상인회는 최근 로컬푸드 호소문을 발표하고,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상인회는 “화순군이 지난 2007년부터 80억원을 투자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형화되면 이 같은 노력도 의미 없는 일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농협은 전통시장 근접거리 50m이 내 대형판매시설 제한 적용도 받지 않는데 이를 악용해 매장 크기를 계속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순군은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사업비 18억원)과 화순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16억8000만원), 주차장건립사업(14억3000만원)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순농협 이형권 조합장은 “화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대부분은 이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게 아니라 공판장에서 떼어다가 판매를 하고 있다”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소규모 농산물의 판매를 돕고, 소비자와 농가를 연결하는 통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인들의 반대가 거세자 화순군은 오는 19일 화순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 전통시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연다.

／화순=조성수·배영재기자 css@



화순농협이 화순하나로마트 인근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설치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속 하나로마트 건물 오른쪽 부분이 로컬푸드 직매장 예정부지.



농어촌경관 전문 인력 양성 등 협력 한국농어촌공-경관학회 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지난 16일 한국경관학회(회장 김한배)와 어촌 경관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어촌공사와 한국경관학회는 ▲농어촌경관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및 인적 교류 ▲농어촌경관 가이드라인 발간 등 공동 연구 ▲농어촌경관분야 시범사업 공동 추진 ▲농어촌경관정책 개발 및 제안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무 사장은 “농어촌 경관은 향토문화 보전과 휴식공간 제공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폭넓게 협력하여 경관분야의 인적·제도적 기틀을 다져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산물 가격 알려 드려요

aT 광주전남본부 알뜰장보기 지원 소식지 ‘얼마요’ 1603호 발행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성장현)는 관내 소비자들의 농산물 알뜰장보기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 1603호를 발행했다.

‘얼마요’ 이번호에 따르면 채소류는 기존 상승과 일조량 증가 등으로 생육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설 명절 이후 관례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외식수수 감소 등 매기둔화로 약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일류는 각 가정마다 설 성수기에 구입했던 과일 재고가 아직 남아 명절기간 과일 소비가 많았던 관계로 소비 선호도 저하로 신규 수요가 미미해 약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T 관계자는 “중추 기온하강이 예보됨에 따라 생육지연으로 산지출하가 다소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 물품 구입 등으로 각 가정마다 지출이 많았던 관계로 씹쓸이를 줄이는 소비 비수기를 맞아 대부분 품목이 매기부진으로 약보합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평농협 ‘상호금융대상’ 전국 1위

재무상태·고객만족도 등 평가 전남지역 25개 조합도 수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가 평가하는 ‘2015년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남평농협(대상, 전국 1위) 등 26개 조합이 선정됐다.

상호금융대상평가는 전국 1134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고객만족도, 보험, 카드, 영업능력향상 등 30개 항목의 신용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농·축협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 평가에서 대상은 남평농협(조합장 최공섭)으로 전국 최고의 농협이 됐다.

또 최우수상은 금천농협(조합장 김선중)·울촌농협(조합장 강진행)·봉산농협(조합장 박오진)·구례축협(조합장 이동운)·전남낙협(조합

장 강동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여천농협, 영광농협, 팔영농협, 서영농협, 장성축산농협, 월산농협이 선정됐고 장려상은 강진농협, 삼호농협, 나비골농협, 회전농협, 득량농협, 염산농협, 순천농협, 목포농협, 정남진장흥농협, 해남진도축산농협, 진도농협, 황룡농협, 율출산농협, 다시농협이 받았다.

이번 수상 조합에게는 등급에 따라 시상금과 해외연수 및 특별승진의 영예와 혜택이 주어진다.

강남경 본부장은 “전남지역 농협들의 수상은 고객밀착형 상호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는 농협구현과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 일용직 인건비 274명분 가로채

감사원, ‘일용직 인건비’ 감사 파면·해임 등 26명 중징계 요구

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직원들이 일을 하지도 않은 인부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소속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를 진행해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중 9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 등의 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징계시효가 지난 11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단일 감사 사항에서 총 10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신분 박탈형 징계’를 요구한

것은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감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등 소속 기관 직원 20명은 지하수영향조사 등 111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부 274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 지역본부 차장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수주를 지원한 대가로 사업수익금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받아 유흥비와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농림부 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4면 발행·호매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군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